

연구논문

한국 대학생의 성차: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중심으로*

Gender Differenc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 Emotions, Thinking Style, and Values

한 민^{a)} · 최인철^{b)} · 김범준^{c)} · 이훈진^{d)}

Min Han · Incheol Choi · Bumjoon Kim · Hoon-Jin Lee

본 연구는 정서와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각 영역을 대표하는 변인을 측정하는 17개 척도들을 선정하여(정서 6, 사고방식 5, 가치관 6),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의 5대 권역 당 200명씩 총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영역에서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는 여성이, 주관적 안녕감 등의 긍정적 정서는 남성이 높았다. 사고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문화성향에 있어서 남성이 집합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영역에서는 권위주의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남성이 높았으며 물질주의는 여성이 높았다. 양가적 성차별에서는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이 높았으며, 온정적 성차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한국 대학생들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의 성차 정보들은 한국인 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관련 변인을 사용하는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대학생, 성차,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305).

a)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b)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c)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d)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훈진.

E-mail: hjlee83@snu.ac.kr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scribe gender differenc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 emotions, thinking style, and values. One thousand college students (Men 523, Women 477) from five regions of Korea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with 17 scales (6 for emotions, 5 for thinking style, 6 for valu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s. Women reported higher scores in negative emotion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while men scored higher in positive emotions such as subjective well-being. Second,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was appeared in thinking style except for collectivism which was higher in men than women. Third, in values, men showed more SDO(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BJW(belief in a just world) than women while women showed more materialism than men. With these results we expect to establish a basic psychological database to understand Koreans as well as to provide valuabl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college students, gender differences, emotions, thinking style, values

본 연구는 문화 및 개인차 이해에 핵심적인 심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마음 지도(지역, 연령, 성별, 계층에 따른 차이)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서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등의 세 영역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성차는 심리학에서 오랜 관심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남녀가 혼재된 표본에서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성차를 분석하거나 제한된 특정 변인에서 성차를 다룬 연구들이며, 마음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과 전국적인 표본을 통해 성차를 알아 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에서의 성차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마음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인 정서, 사고, 가치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한국 남성과 여성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차의 영역

남성과 여성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일 것이다. 생물학적 성차(sex

difference)는 남성과 여성의 정서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충동성과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jorkqvist 1994; Olweus et al. Low 1980),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은 여성의 감성 및 관계 행동에 관여한다(Berman et al. 1999; Burch, Byrd & Vaughn 1974). 그러나 행동의 성차를 유발하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만이 아니다. 문화는 사회유지를 위해 그 사회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가치들을 후속세대에게 교육한다(Benedict 1934). 이러한 사회화 및 문화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성역할을 발달시키게 된다(Mead 1949). 따라서 사회화의 결과로 정서의 경험과 표현,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 등에서 성차(gender difference)가 나타나게 된다(e.g., DiMaggio 1997; Kring & Gordon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세 영역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학생의 성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서

남녀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정서이다(Kring & Gordon 1998; Wester et al. 2002).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를 더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e.g., Brody & Hall 1993; Kring & Gordon 1998). 또한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서장애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으며(APA 2000; Weissman et al. 1996), 이는 국내 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보건복지부 2011), 대학생도 마찬가지였다(노명선 외 2006).

정서에서의 성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우선 생리적인 차이를 들 수 있으나(Blake 1995), 문화에 따른 정서경험 및 표현의 성차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정서의 경험과 표현에는 사회적 규범이 작용하며(Parkinson 1995), 문화에 따라 이러한 규범의 영향력과 범위가 결정된다(Frijda & Mesquita 1995). 특히 한국은 정서표현에 억제적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민경환 외 1998; 조공호 2007), 미국의 경우 정서 억제가 낮은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이은경·서는국·Chu, Kim & Sherman 2009). 이러한 결과는 정서에 있어 문화와 규범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정서에서의 성차가 맥락이나 학습된 성역할과 관련된다는 점에서(e.g., Vogel et al. 1999), 한국 남녀의 정서경험에는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영역의 측정 변인으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및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그리고 병리적 정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우울과 불안을 선택하였다. 정서는 크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나뉜다(강혜자·한덕웅·전경구 2000; 안신호·권오식·이승혜 1990; Watson, Clark & Tellegen 1988). Watson, Clark & Tellegen(1988)은 이러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개발하였고, PANAS는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정서측정 도구임이 입증되었다(Killgore 2000; Melvin & Molloy 2000). 본 연구는 정서의 2요인이라 할 수 있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바탕으로 대표적 긍정 정서인 행복과 대표적 부정 정서인 우울과 불안 등을 측정하여 기본적 정서경험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심리학에서 개인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개념은 크게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삶에서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이라는 인지적 요인과 긍정 및 부정 정서의 정서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된다(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삶의 만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요인은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반응들을 포괄한다(Shin & Johnson 1978). 그러므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과 높은 긍정적 정서경험, 그리고 낮은 부정적 정서경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심리적 안녕감이다. Ryff(1989)는 행복한 삶이 단지 만족과 좋은 기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삶이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개인의 다양한 측면, 즉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등에 초점을 맞춘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Ryff & Keyes 1995).

대표적 부정 정서인 우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역기능의 심각성 때문에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척도가 개발되어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SADS(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Endicott & Spitzer 1978), HRSD(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Hamilton 1960),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1978),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 Zung 1965)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척도들은 주로 우울증 환자들의 정신병리를 진단하기 위한 임상적 도구들로서 일반인

들의 우울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용 역학조사를 위해 개발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사용하였다. CES-D는 우울의 신체, 정신적 증상보다는 정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성이 이미검증된 다른 우울 척도들(예, BDI, SDS, MMPI-D)에서 문항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유하고 있다(Radloff 1977; Weissman, Myers & Harding 1976).

불안은 우울과 함께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로 고려되어 왔다. 우울과 불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e.g., Dobson 1985), Beck은 불안이 우울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불안의 개념을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개발하였다. 주관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 BAI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신뢰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어 왔으며(Beck et al. 1988; Beck & Steer 1991; Steer et al. 1993),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한은경 외 2003).

사고방식

남성과 여성은 사고 및 인지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Calvete & Cardenoso 2005; Caplan et al. 1997). 이러한 성차와 관련해, 사회화 및 문화화 과정이 남녀의 인지과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사고방식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e.g., DiMaggio 1997). 심리학에서 세계의 문화는 크게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로 이해되어 왔는데(Triandis 1988), 서구에서 발달한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에서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가정하며 자율성, 독자성, 유능성 등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주로 동양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집합주의 문화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상징하며 개인의 가치보다는 화합, 협동, 의무와 같은 집단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분석적인 사고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의 산물이며 종합적 사고는 동양 집합주의 문화에서 파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Nisbett 2003; Nisbett et al. 2001). 이렇게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발달시킨 동·서양의 문화는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다양한 인지 및 사고방식의 성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방식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종합적 사고,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과 개념

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개인주의-집합주의, 종결욕구와 조절초점, 그리고 사회비교를 선택하였다.

종결욕구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어떠한 답이든 확고한 답을 원하는 욕망으로 정의된다(Kruglanski & Webster 1996).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정보라도 그것이 불확실성을 줄여준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서 정보탐색을 그만두는 정보처리 경향을 의미한다.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이상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결론으로 비약하는 경향이 높으며(De Grada et al. 1999), 다량의 정보 처리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Houghton & Grewal 2000), 정보처리시 생성하는 가설의 수가 적다(Mayseless & Kruglanski 1987)는 연구들이 있으나, 성차와 관련해서 일관된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충동구매 등 종결욕구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들에서는 성차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충동구매에 대한 국내 연구(이성수 2008)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종결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초점은 사람들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나뉜다. 향상초점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욕구에서 출발하며 향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공이나 획득에 접근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예방초점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며 예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손실이나 실패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택한다(Higgins 1997).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사회활동에서의 성공 등 향상적 목표를,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등 예방적 동기와 관련있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측면에서 남성은 향상초점이, 여성은 예방초점이 각각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절초점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Ouschan et al. 2007), 국내에서는 조절초점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비교는 자신의 능력과 의견 등을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Gilbert, Giesler & Morris 1995), 사회비교의 범위는 외모에서 능력이나 소득수준까지 다양하다(Kruglanski & Mayseless 1990). 비교의 유형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비교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비교, 그리고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사람과 비교하려는 유사비교로 나눌 수 있다. 이때 하향비교와 상향비교는 각각 예방초점 및 향상초점과 관련이 있다(Taylor, Wayment & Carillo 1996). 따라서 사회비교는 조절초점과 관련하여 성차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여성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Gibbons & Buunk 1999)가 존재한다.

가치관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사고와 행동을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치관은 문화비교 연구에서 주제로 다루어진 적은 있지만(Kluckhohn 1959; Rokeach 1973; Schwarz 1994; Triandis 1995),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70개국을 대상으로 가치관의 성차를 비교한 Schwartz & Rubel(2005)의 연구가 독보적인데, 이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권력, 성취, 쾌락주의, 자기주도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이성수(2008)가 물질주의에서의 남녀 대학생 성차를 비교했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치관과 관련된 성차 관련 연구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로 다루어 왔는데, 성역할 태도가 정신건강(김민정·이기학 2002; Hirschy & Morris 2002), 혹은 진로유형(이재창·임용자 2002; 탁진국 1995)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었다.

Schwartz & Rubel(2005)에 따르면,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한 성차보다는 연령 및 문화의 영향이 크다. 문화는 가치의 체계(Hofstede 1980)로서 가치관에서의 성차는 남성과 여성이 문화가 요구하는 다른 성역할을 습득한 결과이다(Mead 1949).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유지를 위해 발달해 온 것으로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가치들은 기존에 확립된 사회적 질서 및 구조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는 보수성(Altemeyer 1998)과 관련을 갖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성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권위주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신뢰 등을 선정하였다.

권위주의는 기존의 사회적 위계에 대한 수용 및 인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강자에 대한 복종, 약자에 대한 가혹함, 그리고 권력과 지배가 중요하다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Adorno et al. 1950). 유교문화의 전통에서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 위계와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행동양식에 익숙해 있으며(최재석 1994), 권위관계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Triandis 1995).

Altemeyer(1988)는 권위주의를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인습주의라는 세 가지 태도요소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를 측정하는 보수적 권위주의 척도(RWA, Right-Wing Authoritarianism)를 개발하였다. 한편, 권위주의는 사회적 지배경향성(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과 관련이 있다(Dru 2007; Whitley 1999). 특히 권

위주의 성격(RWA)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권위주의적 공격성은 사회적 지배지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ssini 2008; Whitley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수적 권위주의(RWA)와 사회적 지배지향성(SDO)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 Belief in a Just World)과 신뢰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전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획득하며 현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Lerner 1965; Lerner & Miller 1978). 신뢰는 사회체제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Yamagishi 1986).

보수성과 권위주의와 같은 가치는 전통적 성역할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Duncan, Peterson & Winter 1997), 또한 권위주의 성향은 편견에 있어서의 성차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ley 1999). 따라서 이러한 보수적 가치들에 대한 남녀의 견해 차이는 편견 등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Schwartz & Rubel (2005)의 연구에서 동아시아 남성이 권력, 성취, 쾌락주의가 높고, 전통에 대한 동조 등에서는 성차가 없다고 보고된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같은 패턴이 예상되나, Schwartz & Rubel(2005)의 연구에는 일본, 중국만이 포함되었고 또한 성차보다는 문화의 영향이 훨씬 강력하다는 보고로 볼 때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및 개인차 연구의 핵심적 심리 영역인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성차를 기술하는 것이다. 정서 영역에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포괄하는 기본적 정서들을 측정하였고, 사고 영역에서는 종합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 유형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개인주의-집합주의 문화적 성향, 그리고 정보처리 성향을 반영하는 과제수행 방식(종결욕구) 및 동기 차원(조절초점 및 사회비교)에 해당하는 척도들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영역에서는 성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화 과정은 사회유지를 위한 보수적 가치의 습득과 관련 있으리라 보고, 기존 질서의 유지를 의미하는 보수성 및 권위주의와, 사회화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성별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등을 측정하였다. 각 영역별 변인 및 척도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인 및 그 측정 척도들로 하였다.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성차를 예측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 정서는 낮고, 우울, 불안 등 부정 정서

는 높을 것이며, 사고 영역에서는 종결욕구와 사회비교에서 여성이, 가치관에서는 권위주의, 보수성에서 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I. 방 법

1. 조사대상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의 5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주요 대학에서 지역별 200명씩 총 1,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 강원권은 춘천과 원주, 충청권은 대전과 청주, 호남권은 광주와 전주, 영남권은 대구와 부산이 1차 자료수집 지역이며, 각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초·중·고 시기를 모두 당 지역에서 보내고 해당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 남녀의 비율은 1:1을 목표로 하였으나 표집과정에서 제외된 자료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았다. 평균연령은 남자가 22.19($SD=2.56$)세로 여자($M=20.45$, $SD=1.79$)보다 많았다($F=153.136$, $p<.001$). 남자 대학생의 연령이 높은 것은 군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들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표 1〉 5대 권역별 연구참여자 현황

(단위: 명)

	남		여	
	사례수(%)	평균연령(SD)	사례수(%)	평균연령(SD)
서울경기	129(64.5)	22.78(2.77)	71(35.5)	20.49(1.59)
강원	97(48.5)	22.01(2.44)	103(51.5)	20.38(1.41)
충청	101(50.5)	21.86(2.35)	99(49.5)	20.55(1.84)
전라	94(47.0)	21.40(2.37)	106(53.0)	20.15(1.65)
경상	102(51.0)	22.68(2.55)	98(49.0)	20.70(2.29)
계	523(52.3)	22.19(2.56)	477(47.7)	20.45(1.79)

2. 절차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면접원들이 각 지역의 대학을 방문하여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들 및 조사기관은 조사 참여자들의 성실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추가하였다. 면접원이 배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지 확인하였고, 조사 후에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조사 후에는 면접원들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응답한 설문지의 내용을 무작위로 질문한 뒤, 실제 본인의 응답 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해당 참여자의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확인 절차 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파기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목표 수의 10%를 추가 표집할 때까지 반복되었으며, 이후 각 참여자들의 응답 경향성 등을 확인하여 무성의한 응답이 의심되는 자료들을 제외하고 지역별 200명, 총 1,000명의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3. 측정도구

1) 정서 영역

우울: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검구·최상진·양병창(2001)이 번안한 역학조사용 우울증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등 우울증의 제반 증상들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자들은 지난 1주일 동안 각 문항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 0점(1일 이하)에서 3점(5~7일)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내적 일관성은 .91로 보고되었고(전검구 등 2001),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906이었다.

불안: Beck et al.(1988)가 개발하고 Kwon(1992)이 번안한 BAI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등 불안장애의 제반 증상들을 측정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912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Diener et al.(198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는 .850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Watson, Clark & Tellegen(198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흥미진진한’, ‘신나는’ 등) 10문항과 부정적 정서(‘짜증난’, ‘화난’ 등) 10문항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은 긍정정서 .855, 부정정서 .877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PWB)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잘 베풀고 나의 시간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삶에 대한 일반적인 안녕감을 측정하는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02였다.

자존감: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잘 할 수 있다.’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10문항의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55이었다.

2) 사고 영역

종합적 사고: Choi, Koo & Choi (2007)가 개발한 종합적 사고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등 사고 스타일을 측정하는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은 .852였다.

개인주의-집합주의/수직-수평차원: Singelis et al.(199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세계의 문화를 개인주의/집합주의로 구분한 틀에 수직/수평차원을 더하여

보다 세분화한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는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차원의 문항 예는 다음과 같다. **수직-개인주의**;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평-개인주의**;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수직-집합주의**;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수평-집합주의**;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694, 수평적 개인주의 .823, 수직적 집합주의 .729, 수평적 집합주의 .815로 나타났다.

조절초점: Ouschan et al.(2007)가 만든 조절초점 전략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어떻게 내 희망과 포부를 달성할지를 자주 상상한다.’ 등 향상동기(promotion)를 측정하는 9개의 문항과 ‘나는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봐 걱정스럽다.’ 등 회피동기(prevention)를 측정하는 9개 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향상동기 .878, 회피동기 .784이었다.

사회비교 경향: Gibbons & Buunk(199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들과 비교한다.’ 등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경향에 대한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23이었다.

종결욕구: Kruglanski, Webster & Klem(1993)이 고안한 종결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한다.’ 등 어떠한 사안을 신속히 종결하려는 경향을 묻는 42문항의 척도이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630이었다.

3) 가치관 영역

보수성: Altemeyer(1998)가 개발한 30문항의 RWA(Right Wing Authoritarianism)와 Zakrisson(2005)이 축약한 15문항의 단축형 RWA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10문항을 추출해 사용하였다. ‘권위에의 복종과 존경은 어린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다.’ 등 개인의 보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622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Pratto et al.(1994)가 개발한 권위주의 척도(SDO)를 사용하였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등 집단 간이나 집단 내의 관계에서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686이었다.

양가적 성차별: Glick & Fiske(1996)가 개발한 양가적 성차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짐으로써 권력을 얻고자 한다.’ 등 적대적 성차별을 측정하는 11문항과 ‘남자는 여자를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 등 온정적 성차별에 대한 11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0)’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5)’까지의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적대적 성차별 .659, 온정적 성차별 .667이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Dalbert(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JW)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공평하다.’ 등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동의한다(6)’까지 Likert 6점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666이었다.

신뢰척도: Yamagishi(1986)가 고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등 타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5)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655였다.

물질주의: Richins & Dawson(1992)이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의 하나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 등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동의한다(6)’까지의 Likert 6점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738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6.0으로 분석하였으며, 성차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주로 사용하였다.

II. 결 과

1. 정서

부정 및 긍정 정서들에 대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2).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정서를 더한 뒤 부정 정서를 뺀 점수로 합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z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다.

부정적 정서에서는 우울($F=51.144$, $p<.001$)과 불안($F=11.625$, $p<.001$)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긍정적 정서에서는 주관적 안녕감(SWB; $F=46.521$, $p<.001$), 심리적 안녕감(PWB; $F=11.169$, $p<.001$), 그리고 자존감($F=7.921$, $p<.01$) 모두에서 남성의 점수가 높았다(표 2). 한편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에서의 성차를 알아본 결과, 삶의 만족도($F=30.03$, $p<.001$)와 긍정 정서($F=48.60$, $p<.001$)는 남성이 더 높았으며, 부정 정서($F=5.56$, $p<.05$)는 여성이 더 높았다(표 3).

〈표 2〉 부정 및 긍정 정서의 성차

	남($n=523$) $M(SD)$	여($n=477$) $M(SD)$	전체($N=1,000$) $M(SD)$	F
우울	13.28 (9.04)	17.64 (10.24)	15.36 (9.87)	51.144***
불안	8.46 (8.12)	10.30 (8.95)	9.34 (8.57)	11.625***
주관적 안녕감	0.44 (2.21)	-0.48 (2.05)	0.00 (2.18)	46.541***
심리적 안녕감	3.55 (0.53)	3.44 (0.44)	3.50 (0.49)	11.169***
자존감	5.03 (0.98)	4.86 (0.91)	4.95 (0.95)	7.921**

** $p<.01$. *** $p<.001$.

〈표 3〉 주관적 안녕감 요소에서의 성차

	남($n=523$) $M(SD)$	여($n=477$) $M(SD)$	전체($N=1,000$) $M(SD)$	F
삶의 만족도	4.03(1.17)	3.64(1.13)	3.84(1.17)	30.03***
긍정정서	3.06(0.69)	2.77(0.65)	2.92(0.69)	48.60***
부정정서	1.99(0.71)	2.10(0.71)	2.04(0.71)	5.56*

* $p < .05$. *** $p < .001$.

남학생이 긍정정서와 안녕감, 자존감이 높고, 우울, 불안과 부정 정서는 여학생이 높은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금미·이은경 2003; 김영운·이은진·김범준 2011; 노명선 외 2006; 보건복지부 2011; 조현주 외 2008; APA 2004; Fujita, Diener & Sandvik 1991; Jylhä & Isometsä 2006; Stommel et al. 1993; Weissman et al. 1996)과 일관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결과이다.

2. 사고방식

다음으로 기본적 사고방식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종합적 사고, 조절초점, 사회비교, 종결욕구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4). 이 중, 조절초점의 경우는 향상동기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기 위해 향상동기(promotion)에서 회피동기(prevention)를 뺀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향상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본적 사고의 경향성이라 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F = .029$, $n.s.$), 조절초점($F = .234$, $n.s.$), 사회비교($F = .035$, $n.s.$), 종결욕구($F = .019$, $n.s.$)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사고방식에서의 성차

	남($n=523$)	여($n=477$)	전체($N=1,000$)	F
	$M(SD)$	$M(SD)$	$M(SD)$	
종합적 사고	4.62(0.69)	4.63(0.64)	4.62(0.67)	.029
조절초점(M-V)	0.68(1.01)	0.65(0.91)	0.67(0.97)	.234
사회비교	3.35(0.56)	3.36(0.58)	3.36(0.58)	.035
종결욕구	4.09(0.33)	4.09(0.36)	4.09(0.35)	.019

〈표 5〉 문화성향에서의 성차

	남(<i>n</i> =523)	여(<i>n</i> =477)	전체(<i>N</i> =1,000)	F
	<i>M</i> (<i>SD</i>)	<i>M</i> (<i>SD</i>)	<i>M</i> (<i>SD</i>)	
수직-개인주의	4.30(0.73)	4.23(0.82)	4.26(0.78)	1.940
수평-개인주의	4.82(0.87)	4.70(0.85)	4.77(0.86)	4.703*
수직-집합주의	4.76(0.75)	4.49(0.75)	4.63(0.76)	31.389***
수평-집합주의	4.91(0.84)	4.70(0.82)	4.81(0.84)	15.299***

* $p < .05$. *** $p < .001$.

이어서 세분화된 문화성향에서의 성차를 알아보았다(표 5). 문화성향에서는 수평적 개인주의($F = 4.703$, $p < .05$)와 수직적 집합주의($F = 31.389$, $p < .001$), 그리고 수평적 집합주의($F = 15.299$, $p < .001$)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3. 가치관

가치관 영역의 변인들, 즉 보수성, 권위주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신뢰, 양가적 성차별 및 물질주의를 종속변인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권위주의($F =$

〈표 6〉 가치관 영역에서의 성차

	남(<i>n</i> =523)	여(<i>n</i> =477)	전체(<i>N</i> =1,000)	F
	<i>M</i> (<i>SD</i>)	<i>M</i> (<i>SD</i>)	<i>M</i> (<i>SD</i>)	
보수성	3.55(0.91)	3.55(0.87)	3.55(0.89)	0.000
권위주의	3.62(0.59)	3.55(0.55)	3.59(0.57)	4.224*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3.51(0.38)	3.43(0.32)	3.47(0.35)	12.459***
신뢰	2.74(0.59)	2.74(0.51)	2.74(0.55)	0.000
물질주의	3.45(0.50)	3.53(0.50)	3.49(0.50)	6.124*
적대적 성차별	2.81(0.54)	2.60(0.49)	2.71(0.53)	40.338***
온정적 성차별	2.72(0.37)	2.68(0.38)	2.70(0.38)	2.061

* $p < .05$. *** $p < .001$.

4.224, $p < .05$),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F = 12.459$, $p < .001$), 물질주의($F = 6.124$, $p < .001$), 그리고 적대적 성차별($F = 40.338$, $p < .001$)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보수성과 신뢰, 온정적 성차별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6). 권위주의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적대적 성차별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물질주의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III.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및 개인차 연구의 핵심 영역인 정서,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 영역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의 결과와 결부해 본 연구의 의미를 조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서 영역에서는 가장 뚜렷한 성차가 나타났다.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 등의 긍정적 정서는 남성의 점수가 높았다. 주관적 안녕감 구성요소에서도 긍정 정서는 남성이, 부정 정서는 여성이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정서 영역에서의 이러한 성차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우울은 여성들이 더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PA 2004; Stommel et al. 1993; Weissman et al. 1996). 한국의 경우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높은 우울 및 정신병질 성향을 보고했으며(김영윤·이은진·김범준 2011; 노명선 외 2006),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조현주 외 2008).

성차의 원인과 관련해, 우울의 성차는 남녀가 우울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일정 정도 기인할 수 있다. 같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해도 여성이 주관적으로 높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남성은 객관적 평정에서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난 반면, 여성은 주관적 평정에서 우울증상이 많다(조현주 외 2007). 따라서 평정방식을 달리하여 조사했을 때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나아가 남녀의 정서경험 방식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여학생의 불안이 높은 결과도 선행연구(e.g., Jylhä & Isometsä 2006) 및 임상적 지식(APA 200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여성(대학생)이 남성(대학생)에 비해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금미·이은경 2003). 이러한 차이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불안을 느끼는 영역이 서로 다른 데에서(Hewitt & Norton 1993) 기인할 수도 있다.

긍정 정서와 안녕감에서 남자 대학생이 높았던 결과는 여학생의 우울과 불안, 부정 정서가 높은 것과 연관되는 것이며,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정서를 여성이 더 많이 느낀다는 점(Fujita, Diener & Sandvik 1991)에서도 예상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차가 단순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남성과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역할을 요구받으며 그러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 행복을 경험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다(Wood, Rhodes & Whelan 1989).

실제로 남성은 외부활동 및 업무 성취 등에서, 여성은 대인관계나 가사 및 육아 등에서 행복을 경험한다는 주장이 있다(Averill 1983).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긍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일관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구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서의 성차는 연령이나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나 직업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행복이 더 높게 나타났고(Wood, Rhodes & Whelan 1989),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유경 2010),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성별의 효과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구재선·서은국 2011; 이홍표·이홍석 2006). 뿐만 아니라, 성차가 정서경험의 차이가 아닌 표현의 차이일 뿐이라는 보고도 있으므로(Kring & Gordon 1998), 정서 영역의 성차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서영역에서의 성차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평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남녀의 정서경험 방식 자체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보고식의 설문방식보다는 특정 정서를 경험하는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 실험적 접근이나 경험표집법 등이 실질적인 성차를 기술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비중 있게 연구되어 온 정서 영역의 성차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사고방식에서는 문화성향을 제외하면 종합적 사고, 조절초점, 사회비교, 종결육구에서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문화성향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합주의, 수평적 집합주의에서 남자 대학생들의 점수가 여자 대학생들보다 높았다. 문화성향에서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수직적 개인주의가 높고 여성이 수평적 집합주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Lalwani & Shavitt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달랐다. 이런 차이는 문화차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성차가 없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Gabriel & Gardner, 1999; Baumeister & Sommer 1997)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관적인 성차의 존재 여부는 다른 연령대에서의 결과와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종합적 사고와 조절초점에서 성차가 유의미 하지 않았던 결과는 선행 연구(Choi, Koo & Choi 2007; Lechuga et al. 2011; Ouschan et al. 2007)와 일관되는 것이나, 사회비교의 경우는 기존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난 반면(남성 < 여성: Beutel & Marini 1995; Gibbons & Buunk 1999),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종결욕구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강하다는 결과(Bouckennooghe et al. 2007)도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보고된 경우(이성수 2008)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조절초점 및 사회비교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들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통적 성역할을 내재화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 변인들에서는 특히 연령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연령을 포괄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은 주로 과제수행에서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은 관계적인 맥락에서 더 많은 비교를 한다는 연구결과(Guimond et al. 2006)를 참조할 때, 남녀가 사회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 맥락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녀의 사회비교 경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정보를 사용한 실험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종결욕구 역시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선행연구의 결과는 성차를 보고하기도 한다. 남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종결욕구와 관련된 성차를 짐작할 수 있는데, 충동구매 시의 종결욕구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종결욕구가 높게 나타났다(이성수 2008). 그러나 종결욕구의 성차는 관심사나 사안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쇼핑행동에서의 남녀차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제품 자체의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여성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후기를 많이 참조하였다(전우영·정현주 2006). 즉 정보가 필요한 구매행동에서는 제품 관련 정보만을 검색하는 남성들에 비해 여러 소비자들의 사용후기들을 참조하는 여성들의 중

결욕구가 더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종결욕구에 있어서의 성차도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영역에서는 권위주의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물질주의는 여성이 높았다. 양가별 성차별에 있어서는 적대적 성차별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온정적 성차별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성향은 남성이 더 강하고(Whitley 1999) 물질주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으며(Beutel & Marini 1995; Workman & Lee 2010), 양가적 성차별 태도는 남성에게 더 나타난다(윤병해·고재홍 2006)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본 연구의 예상을 지지하는 것이다.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치관의 성차는 사회적 현상이나 정책 등에 그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난 권위주의 성향은 편견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hitley 1999).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진 남성 연구참여자들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더 묻는 등(Whitley & Riggio 1993), 가치관에서의 성차는 관련된 사회적 쟁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 역시 성차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특정 사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Dardenne, Dumont & Bollier 200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보고된 바로는 적대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 모두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윤병해·고재홍 2006). 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미세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도 적대적 성차별에서는 남성이 보다 강한 태도를 보였지만, 온정적 성차별에서는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온정적 성차별은 표면적으로 여성에게 우호적인 듯하지만 그 기저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들이 보다 현실적인 배경, 즉 보수적 혹은 진보적 쟁점들 또는 남녀의 차별에 관한 맥락들과 함께 연구된다면 가치관에서의 성차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치밀한 이론적 배경에서 조직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라 실태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오던 핵심적 심리 영역의 성차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지역별, 연령대별,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별 자료가 추가되고 정리된다면 한국인들의 마음 구성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관련 변인을 사용하는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의의는 성차 이해의 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성차는 어떠한 변인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기술되는 정보에 지나지 않았으며, 성차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성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로는 성차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접근, 특히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 작동하는 실질적인 맥락이 관여되는 실험적 방법이나 경험표집법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의 성차를 기술하면서 심리경험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다. 정서와 인지, 가치관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역으로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인지적 차이가 정서경험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Calvete & Cardenoso 2005; Mogg & Bradley 2004; Power & Dalgleish 1997)에서 정서와 인지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가치관은 남녀의 인지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e.g., Whitley 1999)에서 사고방식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성차는 특정 영역별로 독립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에서의 성차에 대한 이해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성차를 포괄하고,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 작동하는 실제적인 맥락에 대한 실험적, 경험표집적 연구들이 보완된다면 성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내의 심리적 다양성을 조망하였다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드러난 성차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1,000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례수가 많기 때문에 작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질 수 있다. 이를테면, 물질주의의 남녀 평균은 남자 3.45, 여자 3.53으로 남녀의 점수 차이는 0.10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는 이들 변인이 다른 변인이나 행동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셋째, 변인의 평균이 척도 중간점보다 낮은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가적 성차별 척도의 경우, 남성의 점수는 2.81, 여성은 2.60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지만,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점수는 모두 Likert 6점 척도에서의 중간점 아래에 있다. 따라서 통계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높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성차와 관련된 결과들은 측정한 Likert척도의 점수와 실제 평균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고방식 영역은 성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더구나 정서 영역이나 가치관 영역과 달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않는 결과도 많았다. 따라서 사고방식 영역의 경우 성차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거나,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인이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능력, 정보처리 양상 등 보다 기본적인 인지적 측면을 포함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하긴 했으나 지역별 인구분포나 성별 분포를 고려한 층화표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집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출된 것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성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비중있게 연구되어 온 문화 및 개인차 연구 영역인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영역의 성차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추후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혜자·한덕웅·전경구. 2000. “정서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기차이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치료학회》 7(1): 51-67.
- 구재선·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김금미·이은경. 2003. “불안, 성별 및 지배성, 진보성이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35-52.
- 김민정·이기학. 2002.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 김영윤·이은진·김범준. 2011. “대학생의 자기에,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 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97-113.
- 노명선 · 전홍진 · 이해우 · 이효정 · 한성구 · 함봉진. 2006. “대학생들의 우울장애에 관한 연구: 유병율, 위험요인, 자살행동 및 기능장애.” 《신경정신의학》 45(5): 432-437.
- 민경환 · 김지현 · 황석현 · 장승민. 1998. “성, 세대,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 반응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19-140.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 보건복지부.
- 안신호 · 권오식 · 이승혜. 1990. “정서의 구조: 정서 단어의 분석.” 《199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 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 유 경. 2010. “노년기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95-109.
- 윤병해 ·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성수. 2008. “충동구매에서 성차: 물질주의와 인지적 종결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9(3): 475-495.
- 이은경 · 서은국, Chu, T., Kim, H. S., & Sherman, D. K.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이재창 · 임용자. 1995. “성역할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여대생의 전통적 진로 유형 및 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1-19.
- 이흥표 · 이홍석. 2006.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29-344.
- 전검구 · 최상진 ·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우영 · 정현주. 2006. “인터넷 쇼핑에서 사용후기가 제품에 대한 평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차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7(1): 113-129.
- 조금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3.
- 조명환 ·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현주 · 임현우 · 조선진 · 방명희. 2008. “성인 남녀의 우울감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83-297.
- 조현주 · 전대연 · 채성호 · 우영섭 · 최정은 · 기백석 · 임현우. 2007. “우울장애의 불안, 신체화, 분노증상과 정서조절방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63-679.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탁진국. 1995.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 성별, 성역할 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1): 161-174.

- 한규석 ·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은경 · 조용래 · 박상학 · 김학렬 · 김상훈. 2003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요인구조: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261-270.
- Adorno, T., E. Frenkel-Brunswik, D. Levinson, & R.N. Sanford.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47-9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uthor.
- Averill, J.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60.
- Baumeister, R.F. & K.L. Sommer.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1): 38-44.
- Beck, A.T. 1978.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Philadelph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 Beck, A.T., N. Epstein, G. Brown, & R.A. Steer.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eck, A.T. & R.A. Steer. 1991. “Relationship Between the Beck Anxiety Inventory and
the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with Anxious Outpati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5: 213-233.
- Benedict, R. 1934. *Patterns of Culture*. Boston: Houghton Mifflin.
- Berman, J.R., L.A. Berman, T.J. Werbin, E.E. Flaherty, N.M. Leahy, & I. Goldstein.
1999. “Clinical Evaluation of Female Sexual Function: Effects of Age and Estrogen
Status on Subjective and Physiologic Sexual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tence Research* 11, SUP1, S31-S38.
- Beutel, A.M. & M.M. Marini. 1995. “Gender and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436-448.
- Bjorkqvist, K. 1994.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Sex Roles* 30, Nos. 3/4: 177-188.
- Blake, F. 1995. “Cognitive Therapy for Premenstrual Syndrome.”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 167-185.

- Bouckennooghe, D., K. Vanderheyden, S. Mestdaghe, & S.V. Laethem. 2007. "Cognitive Motivation Correlates of Coping Style in Decisional Conflict." *The Journal of Psychology* 141(6): 605–625.
- Brody, L.R. & J.A. Hall. 1993. "Gender and Emotion." in M. Lewis & J.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pp. 447–460). New York: Guilford Press.
- Burch, J.C., B.F. Byrd, Jr. & W.K. Vaughn. 1974. "The Effects of Long–Term Estrogen on Hysterectomized Wome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18(6): 778–782.
- Calvete, E. & O. Cardenoso. 2005. "Gender Differences in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nd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2): 179–192.
- Caplan, P.J., M. Crawford, J.S. Hyde, & J.T.E. Richardson. 1997. *Gender Differences in Human Cogn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I., M. Koo & J.A. Choi.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691–705.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 79–98.
- Dardenne, B., M. Dumont & T. Bollier. 2007. "Insidious Dangers of Benevolent Sexism: Consequences for Women's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64–779.
- De Grada, E., A. Kruglanski, L. Mannetti, & A. Pierro. 1999. "Motivated Cognition and Group Interaction: Need for Closure Affects the Contents and Processes of Collective Negoti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346–36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R.S. Emmons, R.J. Larsen, & S. Griffin.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E. Suh, R.E. Lucas, & H. Smit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Maggio, P. 1997. "Culture and Cogni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263–287.
- Dobson, K.S.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5: 307–324.
- Dru, V. 2007.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Effects of Various Self–Categorization Condi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877–883.

- Duncan, L.E., B.E. Peterson & D.G. Winter. 1997. "Authoritarianism and Gender Roles: Toward a Psychological Analysis of Hegemon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 41-49.
- Endicott, J. & R.L. Spitzer. 1978. "A Diagnostic Interview: The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5: 837-844.
- Fujita, F., E. Diener & E. Sandvik. 1991.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 and Well-Being: The Case for Emotional Inten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27-434.
- Frijda, N. H. & B. Mesquita. 1995. "The Social Roles and Functions of Emotions." in S. Kitayama & H.R.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pp. 51-8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briel, S. & W.L. Gardner.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642-655.
- Gibbons, F.X. & B.P. Buunk.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Gilbert, D.T., R.B. Giesler & K.A. Morris. 1995. "When Comparison Ari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227-236.
- Glick, P. & S. Fiske.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uimond, S., A. Chatard, D. Martinot, R.J. Crisp, & S. Redersdorff. 2006. "Social Comparison, Self-Stereotyp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str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221-242.
- Hamilton, M. 1960. "A Rating Scale for Depression,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12: 56-62.
- Hewitt, P.L. & G.R. Norton. 1993. "The Beck Anxiety Inventory: A Psychometric Analysis." *Psychological Assessment* 5(4): 408-412.
- Higgins, E.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irschy, A.J. & J.R. Morris. 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ributional Style: The Relational Influence of Self-Efficacy, Self-Esteem and Sex Role Ident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83-196.
- Hofstede, G. 1980. "Culture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 Organization* 10(4): 15–41.
- Houghton, D.C. & R. Grewal. 2000. "Please, Let's Get an Answer – Any Answer: Need for Cognitive Closure." *Psychology and Marketing* 17(11): 911–934.
- Jylhä, P. & E. Isometsä. 2006. "The Relationship of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to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Depression and Anxiety* 23: 281–289.
- Killgore, W.D. 2000. "Evidence for a Third Factor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in a College Student Sample." *Perception, Motor, Skills* 90: 147–152.
- Kluckhohn, F.R. 1959. "Dominant and Variant Value Orientation." in Kluckhohn, C. and H.A. Murry(eds.),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2nd ed.), N.Y.: Alfred. A. Knopf.
- Kring, A.M. & A. Gordon.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Kruglanski, A.W. & O. Mayseless. 1990. "Classic and Current Social Comparison Research: Expanding the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108: 195–208.
- Kruglanski, A.W. & D.M. Webster. 1996. "Motivated Closing of the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103(2): 263–283.
- Kruglanski, A.W., D.M. Webster & A. Klem. 1993.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861–876.
- Kwon, SM.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Model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Lawani, A.K. & S. Shavitt. 2006. "Gender Differences in Cultural Orientation and Self–Presentation."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echuga, J., B.M. Santos, A.A. Garza–Caballero, & R. Villarreal. 2011. "Holistic Reaso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Validation of the Analysis–Holism Scale in Mex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7(3): 325–330.
- Lerner, M.J. 1965. "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Performer's Reward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355–360.
- Lerner, M.J. & D.T. Miller,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 1030–1051.
- Lyubomirsky, S. & H.S. Lepper.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 Research* 46: 137–155.

- Mayeseless, O. & A.W. Kruglanski. 1987. "What Makes You So Sure? Effects of Epistemic Motivations on Judgmental Confide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9: 162-183.
- Mead, M. 1949. *Male and Female*. Oxford, England: William Morrow.
- Melvin, G.A. & G.N. Molloy. 2000. "Som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among Australian Youth." *Psychological Report* 86: 1209-1212.
- Mogg, K. & B.P. Bradley. 2004. "A Cognitive-Motivational Perspective on the Processing of Threat Information and Anxiety." in J. Yiend(eds.), *Cognition, Emotion and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sbett, R.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The Free Press.
- Nisbett, R.E., K. Peng, I. Choi, & A. Norenzayan.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Olweus, D., A. Mattsson, D. Schalling, & H. Low. 1980. "Testosterone, Aggression, Physical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Normal Adolescent Males." *Psychosomatic Medicine* 42(2): 253-269.
- Ouschan, L., J.M. Boldero, Y. Kashima, R. Wakimoto, & E.S. Kashima. 2007. "Regulatory Focus Strategies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ndorsement of Regulatory Strategi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43-257.
- Parkinson, B. 1995. *Ideas and Realitie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 Passini, S. 2008. "Exploring the Multidimensional Facets of Authoritarianism: Authoritarian Aggression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7(1): 51-60.
- Power, M. & T. Dalgleish. 1997. *Cognition and Emotion: From Order to Disorder*. Hove: Psychology Press.
- Pratto, F., J. Sidanius, L.M. Stallworth, & B.F. Malle.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41-763.
- Radloff, L.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ichins, M.L. & S. Dawson.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Y.: The Free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D. & C.L.M. Keyes.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wartz, S.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chwartz, S.H. & T. Rubel. 2005.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1010-1028.
- Shin, D.C. & D.M. Johnson.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ingelis, T.M., H.C. Triandis, D.P.S. Bhawuk, & M.J. Gelfand.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August: 240-275.
- Steer, R.A., S.J. Rissmiller, W.F. Ranieri, & A.T. Beck. 1993. "Structure of Computer-Assisted Beck Anxiety Inventory with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0: 532-542.
- Stommel, M., B.A. Given, H.A. Given, C.W. Given, H.A. Kalaian, R. Schulz, & R. McCorkle. 1993. "Gender Bias in the Measurement Properties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Psychiatry Research* 49: 239-250.
- Taylor, S.E., H.A. Wayment & M. Carillo. 1996.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M. Sorrentino & E.T. Higgins(eds.), *Hand 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N.Y.: The Guilford Press.
- Triandis, H.C. 1988. "Collectivism v.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Social Psychology." in G.K. Verma & C. Bagley (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pp. 60-95). London: Macmillan.
- Triandis, H.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J. Berman(ed.), *Cross-cultural Perspectiv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70),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l: Westview Press.
- Vogel, D.L., C.M. Tucker, S.R. Wester, & M. Heesacker. 1999. "The Impact of Sex and Situational Cues on the Endorsement of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and Behaviors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459-473.
- Watson, D., L.A. Clark & A. Tellegen.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eissman, M.M., R.C. Bland, G.J. Canino, C. Faravelli, S. Greenwald, & H.G. Hwa. 1996. "Cross-national Epidemiology of Majo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 293-299.
- Weissman, M.M., J.K. Myers & P.S. Harding. 1976. "Assessing Depressive Symptoms in Five Psychiatric Populations: A Valid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6: 203-211.
- Wester, S.R., D.L. Vogel, P.K. Pressly, & M. Heesacker. 2002. "Sex Differences in Emo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4): 630-652.
- Whatley, M.A. & R.E. Riggio. 1993. "Gender Differences in Attributions of Blame for Male Rape Victi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4): 502-511.
- Whitley, B.E. 1999.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126-134.
- Wood, W. N. Rhodes & M. Whelan. 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49-264.
- Workman, J.E. & S. Lee. 2010. "Materialism, Fashion Consumers and Gender: A Cros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5: 50-57.
- Yamagishi, T. 1986. "The Provision of a Sanctioning System as a Public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10-116.
- Zakrisson, I. 2005.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863-872.
- Zung, W.W.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3: 62-70.